

Q 르포 | 벚꽃잎 흩날리는 'SK인천석유화학' 가보니

연일 好실적 비결은 '상생'... 지역 주민도 만족

살랑이는 봄바람과 벚꽃잎이 흩날리는 지난 11일 찾은 SK인천석유화학 공장은 '안전과 행복'이 공존하고 있었다.

석유화학 공장을 떠올리면 원유를 송유관으로 정유하는 투박하고 큰 건물을 연상하게 된다. 하지만 공장 입구에는 SK인천석유화학 공장 내부에 조성된 '벚꽃동산'을 찾은 가족단위 방문객들의 행복한 모습을 만날 수 있었다.

◆**안전·상생 경영으로 미래 50년 준비**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SK인천석유화학은 국내 세 번째 정유사다. 1969년 출범해 한화그룹(경인에너지), 현대그룹(현대오일뱅크)을 거친 후 2001년 부도가 발생해 법정관리의 쓴맛을 봤다. 이후 2006년 SK그룹에 인수되면서 SK에너지(현 SK이노베이션)에 등지를 틀었다. 당시 최태원 그룹 회장이 인수작업을 주도했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2013년 인

적분할 뒤 SK인천석유화학으로 거듭났다.

특히 지난 2014년 SK인천석유화학에 총 1조6200억원을 들여 단일공장 국내 최대규모인 연간 130만톤 규모의 파라자일렌(PX) 공장을 지었다. 석유정제시설만 가지고 있던 단순한 사업 구조에서 석유화학 제품도 생산하는 '딥체인지(사업구조 혁신)'를 실시한 것. 석유화학 생산시설 투자는 PX 호황기와 맞물려 지난 2017년에는 3966억원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 같은 호실적의 배경에는 '안전 및 상생 경영'이 배경이 됐다. SK인천석유화학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20번 작업을 중단했다. 협력사 구성원들이 작업중지권을 발동했기 때문.

예를 들어, 전기열선 작업에 투입된 협력사 세이콘 직원 박종만씨가 작업 현장 발판이 부실하다며 작업중지를 요청했다. 공사 현장 전반을 점검한 후 공사가 재개됐다.

여름철 탱크 내부 용접 작업을 하다가 비정상적으로 탱크내 기온이 올라

가자 여지 없이 작업중지권이 발동됐다. 탱크 전체를 가리는 초대형 차양막을 설치한 뒤 온도가 내려간 뒤에야 작업이 재개됐다.

“
작업 중 안전조치에 최선을 다해 2017년, 3966억 최대실적 이뤄 벚꽃동산으로 이미지 탈바꿈 사회공헌으로 주민과도 상생

이배현 SK인천석유화학 경영혁신실장은 “그동안 회사 자체적으로 많은 개선을 통해 사고 발생을 막으려는 노력을 했지만 끊임없이 발생하는 안전 사고는 막을 수 없었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업 환경이 위험

하거나 안전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협력사 직원들에게도 부여했다. 이는 업계 최초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무재해 안전인시 포상’ 제도 도입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SK인천석유화학은 업계 최초로 일정 기간 무재해를 달성한 협력사 구성원에게 포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100일이 채 안됐지만 60일 달성을 기념해 협력사 직원 570여명에게 선물을 전했다. 선물을 장만하는데 1700만원이 들었다.

◆**지역 주민과 상생 통한 행복 전달**
인천 지역 주민들에게 SK인천석유화학은 과거 '미운 오리'에서 이제는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는 '백조'로 거듭났다. 특히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행복을 전달하고 있다.

올해로 35년째를 맞은 '2019 SK행복나눔 벚꽃축제'가 한창인 이곳에는

벚꽃을 보기 위해 유모차를 끌고 나온 가족과 학생, 노인까지 다양한 주민들로 북적였다. 지난 2014년에 약 1만 9000명에 달하던 관람객은 지난해 약 5만8000명까지 늘어나는 등 5년 새 3배 넘게 증가했다. 이제는 명실상부한 인천 대표 봄 축제 자리매김 했다.

10일 벚꽃 축제 현장을 방문한 지역 주민 박지영 씨(28세)는 “공장 부지와 울창한 벚꽃 동산이 한데 어우러진 모습을 보며 SK인천석유화학의 발전 노력을 발견했다”며 “향후 SK인천석유화학을 떠올리면 오늘 본 벚꽃 동산의 풍경과 친환경 이미지가 함께 떠오를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SK인천석유화학은 일반·발달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특화 사업과 대학생 및 취업생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지역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으며, SK아이벤스·인천유나이티드FC·신한 에스버드·SK슈가글라이더즈 등 지역 스포츠팀과 손 잡고 '희망키움 스포츠 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인천=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더 배터리 챌린지 피치데이 참석한 스타트업 관계자가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LG화학 글로벌 스타트업과 배터리 신기술 발굴

LG화학이 해외 스타트업과 배터리 신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

LG화학은 지난 10일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더 배터리 챌린지' 피치데이를 개최해 스타트업 5곳을 최종 수상팀으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더 배터리 챌린지'는 LG화학이 배터리 업계 최초로 글로벌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전으로 지난해 8월 서류접수를 시작하여 27개국의 스타트업 129곳이 지원해 약 2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류와 인터뷰 심사를 통과한 7곳의 스타트업(미국 6곳, 영국 1곳)이 참석해 각각의 기술 및 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LG화학은 혁신성, 기술상용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총 5곳(미국 4곳, 영국 1곳)의 스타트업을 수상팀으로 선정했다.

LG화학은 최종 선발된 스타트업 5곳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향후 최대 총 200만불의 지분 투자도 진행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LG, 美 스타트업서 미래 찾는다... 2000만달러 투자

모빌리티 공유 소프트웨어 업체 등 LG테크놀로지벤처스 통해 美에 투자

LG가 미래 사업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미국 스타트업 투자 행렬에 한창이다.

LG는 기업 벤처캐피털인 LG테크놀로지벤처스를 통해 최근까지 미국 스타트업에 1900만달러를 투자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LG테크놀로지벤처스는 지난해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 5개 계열사가 미국 실리콘밸리에 설립한 회사다. 4억



LG 구광모 대표가 미국에서 열린 테크 컨퍼런스에 참여해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 /LG

2500만달러를 운용 중이다. 시작은 지난해 10월 라이드셀에 500

만달러를 투자하면서였다. 모빌리티 공유 소프트웨어 업체다.

이어 가상현실 플랫폼 서비스 스타트업 어메이즈브이알에 200만 달러를 투자해 5G 콘텐츠 역량 강화에도 힘을 쏟았다.

그 밖에도 광학 필름 관련 기술을 보유한 옵토닷과 요리 레시피와 식재료를 배달하는 사이드쉐프 등 다양한 분야 스타트업에 투자해 미래를 준비 중이다.

LG테크놀로지벤처스는 앞으로도 글로벌 스타트업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로봇과 가상현실 등 콘텐츠, 그리고 소재와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유망 분야에 대해 투자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재용 기자 juk@



삼성전자 IM부부장 고동진 사장이 4월 10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진행된 'A 갤럭시 이벤트'에서 갤럭시 최초로 로테이팅 카메라를 탑재한 '갤럭시 A80'을 소개하는 모습. /삼성전자

삼성전자 회전카메라 탑재한 '갤럭시 A80' 태국서 출시

후면카메라 전면으로 자동전환 4800만 화소 기본카메라 적용

Galaxy A80

삼성전자가 10일 태국 방콕에서 글로벌 미디어와 파트너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A 갤럭시 이벤트'를 개최하고, 갤럭시 최초로 회전 카메라를 탑재한 '갤럭시 A80'을 전격 공개했다.

이 날 행사에 참석한 삼성전자 IM부부장 고동진 사장은 "갤럭시 A80은 셀피 시대를 넘어 일상생활의 순간순간을 즉시 공유하는 '라이브 시대'를 사는 소비자들에게 최상의 모바일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저가 스마트폰 갤럭시 A80은 동일한 카메라를 전후면 촬영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회전 카메라와 인텔리전트

카메라를 탑재했다. 스마트폰 후면에 4800만 화소의 기본 카메라와 3D 심도 카메라, 초광각 카메라를 탑재했다. 사용자가 셀피 촬영을 위해 모드를 전환하면 후면 상단이 위로 올라가면서 카메라가 전면 방향으로 자동 전환된다.

갤럭시 A80의 4800만 화소 기본 카메라는 낮과 밤에 상관없이 선명한 사진 촬영이 가능하며, 사람의 시야각과 유사한 화각 123도의 8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를 탑재해 사용자가 보고 있는 장면 그대로 기록할 수 있다.

국내 출시 여부는 미정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